



▲애플 전년동기 대비 1분기 매출 감소폭

애플 어닝쇼크...아이폰 판매 1년전보다 16% ↓

2003년 이후 첫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올 1분기 매출 작년보다 12.8% 줄어 중국 중심 아이폰 판매 부진이 원인 삼성전자·화웨이 글로벌성장도 한몫

천하의 애플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것. 애플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아이폰의 경쟁력이 하락한데다 중화권 시장에서의 지배력

약화, 새 성장 동력의 부재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세계 시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주춤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기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1분기(애플 회계연도 2분기·1~3월)에 505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감소한 수치다.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8% 줄어든 1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시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자존심을 구긴 데에는 주요 제품의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애플의 고속 성장을 견인했던 아이폰의 판매가 저조했다. 지난 분기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6% 가량 감소한 5119만대에 그쳤다. 아이폰과 함께 대표 제품군인 아이패드 판매량도 19% 감소한 1025만대로 나타났다.

애플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이팟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주요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탔다. 무엇보다 첫 아이폰 제품

이 나온 2007년 이후 9년 동안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아이폰의 판매가 줄면서 결국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현재로서 애플이 다시 이전 같은 고속 성장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다. 올해 하반기 나올 아이폰 신제품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만 시장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탓이다. 최대 경쟁사인 한국의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의 화웨이 등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날 중국에서 출시행사를 열고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7 시리즈를 판

매하기 시작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도 최근 세계 최초 라이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전략 스마트폰 P9 시리즈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제품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LG전자 등도 G5 등 전략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외에도 새 성장 동력으로 전기자동차 사업 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경쟁 음성인식 문자·자녀 위치확인 등 가능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웨어러블(입는) 기기가 주목받고 있다. 손목에 차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안심보호 기능은 물론 음성통화와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데이터를 이용해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어 인기다. 이동통신사들은 월8000원 가량으로 음성과 문자,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도 잇따라 출시해 눈길을 끈다.

KT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라인키즈 폰'을 최근 선보였다. 라인프렌즈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에 음성 인식 문자와 자녀 위치확인, 원격관리 가능하다. EBS와 마법천자문, YBM 등 학습 콘텐츠 체험형 게임도 제공한다. 7월 31일까지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고 KT 휴대폰을 이용하는 가족과 함께 등록하면 월정액의 최대 50%까지 1년간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키즈워치 '쥬니버토키'를 내놨다. 네이버 영유아 포털 '쥬니버토키'의 캐릭터인 '쥬니'를 적용했다.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방수와 방진 기능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출시 한 달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구매몰인 U+Shop에서 쥬니버토키를 구매할 경우 인기 완구인 '타넵메카드'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014년부터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T키즈폰'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두 번째 버전을 내놨다. 현재까지 총 30만대 이상이 판매될 만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SK텔레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음성통화는 물론 전용 메신저 '쥬톡',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위급 알람, 캐릭터 키우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다룬 통신사를 이용하는 부모도 본인의 스마트폰을 자녀의 T키즈폰과 연동할 수 있게 했다. 김병근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손목에 차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SK텔레콤의 'T키즈폰'과 LG유플러스의 '쥬니버토키', KT의 '라인키즈폰' 사진제공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쉐보레가 아키텍처와 디자인, 파워트레인, 세시 및 안전 시스템 등 모든 부분에서 진화한 중형 세단 '올 뉴 말리부'를 출시했다. 출시 행사에서 제임스 김 사장이 '올 뉴 말리부'의 출판을 기대하며 스윙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GM

'압도적 가성비' 말리부, 중형세단 판도 바꿀만하네

1.5L 터보모델 2000만원초반대 가격 2.0터보엔진은 동급 최대 253마력 휠베이스 93mm·전장 60mm 늘어

2310만원~2901만원이며, 2.0L 터보 모델은 2957~3180만원이다(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인하 배 적용).

●압도적인 크기, 진일보한 실내 디자인

중대형차급 수준의 압도적인 차체 크기와 실내 공간도 매력적이다. 신형 말리부의 차체 길이는 4925mm로 현대차 그랜저보다 길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93mm 확장된 휠베이스와 60mm 늘어난 전장을 갖췄다. 그 러면서도 차량 무게는 이전 모델 대비 130kg 줄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료효율과 다이내믹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

실내 디자인도 진일보했다. 스티어링 휠, 계기판은 물론 기능 스위치 버

튼까지도 완전히 새 디자인을 적용했다. 단점으로 지적되던 2열 공간도 획기적으로 넓었다. 33mm 늘어난 2열 레그룸과 낮게 설계된 중앙 터널을 통해 거주성을 높였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가죽 트림도 실내 감성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소다.

●1.5·2.0 터보 엔진의 폭발적인 성능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하는 1.5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동급 최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2.0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채택했다. 4기통 1.5리터 엔진은 최대 출력 166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발휘하며 기존 2.0리터 자연흡기 엔진을 완벽히 대체한다. 복합

연비는 13.0km/l이다. 캐딜락 CTS에 적용되었던 4기통 2.0리터 직분사 터보 엔진은 253마력의 동급 최대 출력을 내 기존 중형 세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전자유동제 동축 안전 시스템

신형 동급 최초로 적용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저속 및 고속 긴급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등은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해 능동적으로 사고를 예방한다.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등 프리미엄 안전사양을 대폭 적용해 전자유동제 동축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공정위 조사 1회만 거부해도 백화점·대형마트 과태료 1억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1회만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해도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법위반횟수와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2000만원~1억원, 법위반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2000만원~1억원을 부과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1차 위반 시 1억원, 3차 이상 위반하면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뒤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을 일정 기간 안에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뢰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6월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박나래 'G마켓 실현 패러디' 영상 화제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이 개구먼 박나래의 실현 패러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G마켓은 유튜브에 실현으로 부한 박나래 패러디 영상 4편을 선보였다. 박나래는 실현이 출연한 CF 광고 총 28편 중 '거짓말탐지기', '전기면도기', '외장하드', '소맥탕탕' 4편을 같은 콘셉트로 촬영했다. 박나래 특유의 재기발랄함과 예측불허 엉뚱함은 촬영장마저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외장하드' 편에서 실현은 오빠 서랍 속에서 나온 의문의 외장하드를 보여 궁금대 하는 순수한 표정을 짓지만, 박나래는 음흉한 눈빛을 보여 큰 웃음을 던져준다.

매주 2회 운동·충분한 수면...발기부전 고민 해결

■발기부전 예방법

중년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는 '발기부전'이다. 발기부전은 성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음경의 발기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거나 유지되지 못하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신경계 이상, 혈관계 이상, 내분비계, 음경 해면체 장애 등의 기질적 요인과 성에 대한 공포 및 불안감, 결벽증, 정신 질환, 콤플렉스로 인한 자

신감 상실과 같은 심인성 요인 그리고 당뇨, 고혈압, 비만, 갱년기와 같은 전신 질환이 꼽히고 있다. 예전에는 중년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겼지만, 스트레스 흡연 음주로 인해 20~30대에게도 확대되고 있다. 발기부전이 발생하면 원만한 부부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을 겪게 된다.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발기 유발제 주사'와 '음경 보형물 삽입

술'이 있다. 발기 유발제 주사는 혈관 확장제인 PGE1과 파파베린 등이 들어간 약물을 음경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법이다. 먹는 약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가는 주사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통증도 적은 장점이 있다. 다만 부작용으로 간혹 주사약제 투입 후 발기가 장시간 지속되는 '음경지속발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음경 보형물 삽입술은 수술적 치료법으로 음경에서 발기에 관여하는 조직인

음경해면체 내에 인공 보형물을 넣는 치료법이다. 음경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음경 및 귀두의 감각은 변화가 없고 사정이나 극치감은 수술 전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기를 원할 때 할 수 있게 된다. 보형물의 종류는 팽창형과 비팽창형(주로 굴곡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음경 보형물 삽입술은 어떠한 유형의 발기부전 환자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기부전은 일상생활의 몇 가지 생활 습관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운동이다. 매주 2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욕을 항진하게 만드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

진할 수 있으며, 기질성 발기부전의 원인인 고혈압과 비만 등의 성인병 질환을 막음으로써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도 도움이 된다. 수면을 정상적으로 취함으로써 음경의 발기 조직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 이는 발기가 시작되고 충분히 유지하게 된다. 또 담배, 술, 불필요한 약물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담배, 술, 안정제, 진통제 등은 많은 혈관의 파리로 구성된 음경 해면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서울뉴비뇨기과 박지현 원장

